

전남 서남권 장밋빛 개발계획 봇물

朴당선인 서남해안 관광개발 공약 따라
道, 신발전지역·차이나 아일랜드 등 추진
대부분 민자사업 실현가능성은 불투명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서남해안 관광 개발 지원' 공약에 따라 목포, 신안, 무안, 영광, 해남, 진도 등 전남 서남권을 개발하는 장밋빛 계획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3조6987억원대 자금이 투자되는 서남권 신발전지역이 추진되고, 신안에 카지노를 갖춘 '차이나 아일랜드' 조성도 추진된다. 또 중단됐던 서남권 경제자유구역 재지정도 추진된다.

'목포의 눈물'로 대변됐던 호남 소외의 상징, 전남 서남권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

다. 하지만 이들 사업 대부분은 그동안 정부가 수차례 반려·축소했으며, 민간 투자가 수조원에 달하고 구체적 개발 계획도 없어 실현 가능성은 작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국토부 등과 신발전지역 중 사업 실현가능성이 큰 지구를 먼저 개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29개지구를 14개지구(발전촉진지구 6개, 투자촉진지구 8개)로 축소해 오는 3월 국토정책위원회에 재심의하기로 했다.

또 신안 다이아몬드제도 일원인 자은, 안좌, 노대 일대에 고급 숙박시설과 카지노, 면세점, 휴양지, 레저, 쇼 팡물 등을 건설하는 차이나 아일랜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대규모 중국 관광객을 겨냥한 차이나 아일랜드는 신안 일대 다이아몬드 형태로 흩어져 있는 섬들에 조성된다. 이 사업은 서남권경제자유구역의 선도사업으로 추진되며 부동산이민제 등을 통해 해외자본을 유치할 계획이다. 오는 2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2월 개발예정지와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또 2007년과 2012년 두차례 지정이 무산됐던 서남권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다시 도전한다. 현재 '1도 1경제자유구역' 원칙에 따라 전남지역에 이미 운영 중인 광양만경경제자유구역의 한 개 지구로 서남권을 지정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조만간 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기본구

상안을 마련해 오는 6월 용역을 마친 뒤, 12월 신청할 방침이다.

반면, 전남도가 재정부 출범에 맞춰 실현 가능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사업 계획만 남발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차이나 아일랜드의 경우 투자자는 물론 투자 규모, 기본계획조차 없으며 서남권신발전지역도 전체 사업비 3조6987억원 중 85% 이상인 3억 1717억원을 민자 투자에 의존하고 있다. 한 지역에 2개 이상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도 타지역과 형평성 때문에 난관이 예상된다.

한편 신발전지역은 입주하는 신설 기업과 개발사업 시행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해 주는 제도이며, 경제자유구역은 일정한 구역을 지정해 각종 혜택을 부여해 주는 경제 특별 구역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U대회 566억원 후원협약

국내 대회사상 최대규모...SK텔레콤·SK C&C와 체결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이하 U대회 조직위)가 국내 대회 사상 최대 규모의 후원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U대회 조직위(위원장 강운태)는 28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SK텔레콤·SK C&C와 566억원 규모의 정보통신분야 후원 협약을 체결하고 대회 후원사 최고등급인 '글로벌 프리미엄 파트너'

의 지위를 부여했다.

U대회 조직위는 국제대회 개최 도시가 자체적으로 체결한 후원 규모로는 이번이 국내 최고액이라고 밝혔다. SK측은 협약과정에서 U대회 조직위와 UN이 공동으로 추진중인 남북단일팀 구성 등 한반도 평화 프로젝트에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U대회 조직위는 자동차와 전자, 금융을 대표하는 업체 3곳과 비슷한 규모의 협약을 추가로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U대회 조직위는 SK측에 정보·통신 분야의 독점적 파트너 자격을 주는 한편 대회 공식 후원사 명칭과 상징물 사용 권리를 비롯한 문화행사, 성화봉송 등 대회 특별 프로그램 우선 참여권, 국내외 광고 및 프로모션권 등 총 35가지의

권리를 제공하게 된다.

또 대회기간 중 방송중계를 통해 전 세계에 노출되는 경기장 내 설치 광고뿐 아니라 조직위 공식 홍보물 등을 통해 세계적으로 기업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준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후원 기업 입장에서 UN과 공동으로 추진한 남북단일팀 구성 등이 큰 매력으로 작용한 듯하다"면서 "성공적인 대회운영을 통해 U대회 투자 기업들도 투자대비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5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는 2015년 7월 3일부터 14일까지 12일동안 광주시 일원에서 개최되며 170개국 2만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우뚝 선 나로호

내일 발사 이상무

우주를 향해 첫 발을 댈게 된 나로호(KSLV-I)가 28일 발사대로 옮겨져 수직으로 세워졌다. <관련기사 3면>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날 "이송장치에 실려 발사대로 옮겨진 나로호와 발사대 케이 블마스트(발사체와 발사대 시스템을 연결하는 구조물)의 연결을 오후 12시40분경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후 2시41분께부터 24분간 이렉터를 이용해 수평상태였던 나로호를 기립시켰다.

나로호는 전기점검과 성능 점검을 마치고 29일 오전 9시30분부터 발사 리허설을 하게 된다. 리허설은 실제 발사 상황을 가정하고 시간대별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다.

발사에정일인 30일 오후 고층 나로우주센터 상공은 구름이 많이 끼었지만 눈이나 비 소식이 없어 발사에 큰 지장을 주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로호 발사 예정 시각은 30일 오후 3시55분~7시30분으로 유지되고 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알림

11년만의 재회 월·간·예·향



4월호부터
발행합니다

광주일보 자매지 월간 '예향'이 새봄과 함께 더 멋진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지난 84년 10월 창간호를 낸 이래 2002년 2월호까지 17년 동안 209호를 끝으로 발행 중단됐던 '예향'이 본사 창사 61주년을 맞아 4월호 발행을 계기로 독자 곁으로 돌아옵니다. IMF 이후 수년간 경영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잠정 발행이 중단된 이후 11년 만입니다.

'예향'은 다양한 볼거리와 읽을거리로 남도인의 자긍심을 고취시켰으며 독자 여러분의 호응에 힘입어 공보처와 '출판저널' 등에 의해 여러 차례 우수잡지상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아 광주는 명실상부한 아시아의 문화허브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 세기에 비해 광주의 문화

환경은 크게 바뀌었고 문화를 향유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도 폭발적으로 분출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이러한 문화적 욕구와 수준 높은 문화예술 담론을 담아낼 전문매체의 부재에 안타깝게 생각한 끝에 1년여의 준비를 거쳐 새롭게 '예향'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새로 발간될 New '예향'은 기존의 컨셉에서 한 발 나아가, 지역성과 국제성이 가미된 고품격 문화예술교양지를 지향하고자 합니다. 광주를 중심으로 전남·북, 국내, 국제 등을 포괄하는 취재와 시원하고 모던한 편집, 깊이와 품격이 느껴지는 글, 전면 컬러 사진은 독자 여러분을 수준 높은 문화예술 세계로 초대할 것입니다. 구독료는 월 1만 원입니다.

光州日報社



아름다운 태를 빛는 단 하나의 이치
한방 탄력케어 | 일리

보습을 넘어 탄력케어까지!
토탈에이지 바디로션

옛 여인들의 피부관리 비법과 아모레퍼시픽의 수십년간 축적된 한방바이오 과학을 담아 아름다운 태를 현대에 재현합니다